

대학생의 이성 친구를 위한 소비행동과 심리

김 용 관(인하대 학부생) · 이 은 희(인하대 교수)

김 지 혜(인하대 석박사 통합과정) · 페르도우스 칸(인하대 석박사 통합과정)

어린 나이에도 남녀 간의 이성교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 간 정신적·물질적인 요소를 함께 누리는 좀 더 발전된 이성교제의 시작은 대부분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교제는 사랑의 벽찬 감정과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만남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이 용돈에 의존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이성교제를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성간 데이트 비용 분담의 문제, 소비수준이나 소비패턴의 차이 등은 이성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를 지속하는 커플들의 경우는 비용지출 방법이나 수준에 대한 상호 동의수준이 높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 친구를 위한 소비행동과 심리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트 할 때의 비용과 지출 품목, 비용의 조달 방법, 분담 내용 등을 조사하였으며 본인과 상대방의 부담액에 대한 의견과 비용부담을 하고자 하는 심리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0대 대학생 커플 4쌍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대학생들의 이성 친구를 위한 소비행동 및 심리는 ‘희생’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은 지출의 부담을 가져온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이성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본인의 소비를 줄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추가 소득창출 행위를 하는 등 ‘만남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점심을 주먹밥으로 때문다든가 친구 만나는 횟수, 술 값, PC방 출입횟수, 의류나 화장품 쇼핑 등을 줄이거나 저금이나 적금을 깨는 경우도 있었다. 이성 친구와의 만남 시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는데, 남학생들은 ‘남자니까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남자와 여자가 6:4 정도의 비용분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닌지 미안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세대들답게 특별한 날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

본인들의 지출액이나 지출방법 보다는 다른 커플들과 비교당할 때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성 친구와 소비 패턴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비용과 관련한 희생 또는 불만은 ‘심리적 만족’을 통해 충분히 보상된다고 하였다. 즉,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거나 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심리적 만족을 느끼고 이것이 데이트 비용 관련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그리고 비용 마련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